

청소년 성인지감수성 척도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이지혜 박우현 전소영 이수정†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인지감수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성인지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그간 성인지감수성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와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지감수성의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이후 ‘청소년용 성인지감수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예비문항을 포함한 설문지를 서울·부산·대구·경기도·충청도·전라도 지역의 중학교 6곳(학생 979명), 고등학교 5곳(학생 1,864명)에 배포하고 회신 응답지 중 불성실 응답지를 제외한 1,656개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차례로 실시하고 위계 2요인 모형을 검증하여 척도의 최종 모델을 확정하였다. 척도의 표준화를 위해 구인타당도 및 공인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시행하고, 규준표를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 성인지감수성의 구성요인으로서 ‘성인지와 성에 대한 태도’에는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통념’, ‘남성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성적 자극 추구’, ‘성적침해 둔감’이, ‘감수성과 성평등 지향’에는 ‘성차별 인식 능력’, ‘고통공감 능력’, ‘자기통제 능력’, ‘조망수용 능력’, ‘성평등 지향’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타당도 척도인 ‘비일관적 반응’, ‘방어적 반응’, ‘비전형적 반응’을 추가하였으며, 이로써 최종 문항으로 총 105개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성인지감수성의 구성요인을 밝혀내고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척도는 교육 현장에서의 청소년 지도 방향을 결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청소년, 성인지감수성, 젠더감수성, 성차별, 성폭력, 혐오, 공감

* 이 논문은 이지혜의 2023학년도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 하였음.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이의동)

E-mail: suejung@kyonggi.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국가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국가정책 마련의 근거나 기준으로 삼으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고, 여러 정부 정책에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 왔다.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젠더 이슈를 스스로 감지하고 성별과 다른 사회 요소들이 만들어 낸 현상들을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성인지감수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무엇보다 청소년에게는 성차별과 성적침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제공하고 성인지적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교육부, 2015). 청소년기는 인지 및 정서의 발달 전환기에 있으며(하경혜, 2018), 성역할이나 성태도 및 성행동을 형성하는 시기(Gruber & Grube, 2000), 성과 관련된 태도나 고정관념은 청소년들의 교육활동, 사회행동, 직접적 목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경숙, 김한결, 선우현, 2022). 청소년기에 행해지는 성 관련 경험에 따라 성인지감수성 역량이 결정되며, 성인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된다(이희영, 2007). 하지만 청소년의 성인지감수성을 어떻게 교육·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으로 반영 및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실증연구가 필요함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감수성 연구들은 빈약한 실정이다.

성인지감수성의 정의

성인지감수성 개념은 1995년 UN 여성대회에서 언급된 후 세계로 확산하였다. Leal Filho (2021)는 ‘Gender sensitivity’란 기존의 성별 차이, 문제 및 불평등을 인정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관련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은 성인지감수성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안상수와 김이선, 김금미(2009)는 성별 간 존재하는 차이를 알아차리고, 이러한 차이가 실생활에서 유무형의 차별과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숙고하여 극복할 대안을 찾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고, 강선미(2005)는 젠더 이슈와 불평등에 대하여 지각하는 능력이라 보았다. 김경숙 등(2022)은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고려할 때, 성인지감수성은 성 불평등과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성인지감수성은 ‘성평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러한 인식을 다양한 차원과 맥락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말한다. 둘째, 성인지감수성은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행동화’ 단계를 포함하며, 이는 인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평등에 대항한 권리투쟁으로서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성별에 따른 다양한 입장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성별로 인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현상에 대해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다양한 차원과 맥락에 확대 적용

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변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성인지감수성의 구성요인을 확인하는 한편, 표준화된 청소년용 성인지감수성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인지감수성 구성요인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 중에서는 우선 McMahon과 Farmer(2011)의 '강간 통념 수용 척도'가 번안되어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강은영, 강민영, 박지선, 2020). 이보다 다소 오래전에 개발된 척도로는 Spence와 Helmreich, Stapp(1973)의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WS)가 있다.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고전적인 도구로서 Bem(1974)의 성역할 검사(Bem Sex-Role Inventory: BSRI)가 있으며, 이 척도는 12문항의 단축형 척도도 개발되어 있다(Vafaei, Alvarado, Tomás, Muro, Martinez & Zunzunegui, 2014). 그 밖에 Brogan과 Kutner(1976)의 성역할 인식 척도(Sex Role Orientation: SRO), Beere와 King, Beere, King(1984)의 성역할 평등주의 척도,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Obiunu(2013)의 성차별 감수성 척도(Gender Sensitivity and Discrimination Scale: GSDS), 온정적 성별 의식과 적대적 성별 의식을 각각 측정하는 양가적 성차별 척도(Ambivalent Sexism Inventory)가 있다(Glick & Fiske, 1996).

국내에서는 김영희(1988)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 김양희와 정경아(1999)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이병숙, 김명애, 고효정(2002)의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안상수, 김이선, 박군석, 이상화, 김정인(2009)의 '성인지력 척도', 김인숙, 이은영, 하지선(2010)의 '성

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 척도', 이진영(2011)의 '젠더감수성 척도', 안상수, 김인순, 김금미(2016)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개정판' 등이 있다. 가장 최근 개발된 김경령, 서은희(2020)의 젠더감수성 척도 개발 연구에서는 여성혐오, 적대적 성차별, 온정적 성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성폭력 인식 등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총 28개의 문항이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개발된 성인지감수성 척도에서 성인지감수성의 구성요인은 크게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감과 성찰의 측면을 구성요인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발달과 성인지감수성

표 1. 기존 척도의 성인지감수성 구성요인

요인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태도 성역할 규범에 대한 고정관념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
성차별	성평등 인식 여성의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온정적 성차별 적대적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혐오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강간 통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폭력에 대한 허용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동성애에 대한 인식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공감과 성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 자기성찰

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성인지각수성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성인지각수성이 요구되는 장면들을 되도록 다양하게 담을 것, 청소년의 성 발달의 특성을 반영할 것, 인지뿐 아니라 사고와 정서, 행동적 측면도 함께 측정할 것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구성요인에는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편견, 성폭력 통념 등 고전적인 요소를 포함하였고, 남성에 대한 편견을 추가하였다. 또한 자기성찰과 공감, 그리고 그 결과로써 타인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태도인 성차별 인식 능력, 고통공감 능력, 자기통제 능력, 조망수용 능력을 구성요인에 포함하였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사회적 변화에 대한 태도로서 성평등 지향을 포함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신과 타인의 성적 욕구를 조율하고 경험해 나가는 시기인 점에서 성적 자극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성적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가 성인지각수성의 핵심적인 이슈라 할 수 있으므로 성적 자극 추구와 성적침해 둔감을 구성요인에 포함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22년 9월부터 연구의 목적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11월까지 예비문항을 선정하여 12월부터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은 EBS 표준화 심리검사 개발팀이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 소속 학생들에게 실시되었다. 설문 기간은 2022. 12. 1.~2023. 5. 30.으로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합하여 서울·부산·대구·경기도·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총 11개의 학교(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에서 총 2,843명의 설문(중학생 979명, 고등학생 1,864명)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불성실 응답지를 정리한 후 총 1,656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1차 조사는 학년별 100명씩으로 배분하여 총 60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2에서 제시하였다. 1차 조사 응답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2차 설문

표 2. 1차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분	성별		빈도 %	
	남성 빈도(%)	여성 빈도(%)		
학년	중 1학년	42(12.9)	58(21.1)	100(16.6)
	중 2학년	58(17.8)	42(15.3)	100(16.6)
	중 3학년	42(12.9)	58(21.1)	100(16.6)
	고 1학년	69(21.2)	57(20.7)	100(16.6)
	고 2학년	43(13.2)	57(20.7)	100(16.6)
	고 3학년	71(21.8)	29(10.5)	100(16.6)
총계(전체 중 %)	325(53.8)	275(46.2)	600	

표 3. 2차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분	성별		전체 빈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학년	중 1학년	60(8.5)	73(21.1)	133(12.6)
	중 2학년	54(7.6)	45(13.0)	99(9.4)
	중 3학년	73(10.3)	101(29.2)	174(16.5)
	고 1학년	248(34.9)	118(34.1)	366(34.7)
	고 2학년	160(22.5)	4(1.2)	164(15.5)
	고 3학년	115(16.2)	5(1.4)	120(11.4)
총계(전체 중 %)	710(67.2)	346(32.8)	1,056	

을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총 1,056명의 학생이 응답지를 작성(중학생 406명, 고등학생 650명)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지를 정리하여 총 1,656개의 응답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2차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3에서 제시하였다.

예비문항 개발

성인지각수성 검사의 예비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범죄심리학 교수 1명, 임상·범죄심리 전문가 2명, 교육학·여성학·범죄심리학 박사 3명 및 석사 4명, 중·고등 교사 2명이 참여하여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브레인스토밍과 논의를 거쳐 청소년기 성인지각수성 이슈가 두드러지는 장면을 중심으로 총 161문항을 선정하였다.

기존 척도인 McMahon과 Farmer(2011)의 ‘강간 통념 수용 척도’는 강간 사건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척도로써 참고하였고, 이진영(2011)의 ‘젠더 감수성 척도’, 안상수, 김인순, 김금미(2016)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개정판’ 척도는 성정체성과 성차별 의식 및 성인지 관련 문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기존 척도들의 문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의 특성상 성 지식을 얻는 방식이나 성적 자극 또는 침해에 대응하는 태도 등 관련 문항을 자체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항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성평등 실현에 대한 지식과 공감 정도 및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성별에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비롯하여 혐오, 그루밍, 성적 장난과 괴롭힘, 성폭력 등 성과 관

련된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 성폭력과 음란물 노출 등에서 청소년기에 주요하게 드러나는 특성을 반영한 문항을 비중 있게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위하여 1차 조사한 대상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유효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 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여 요인을 추정하고, 요인 회전 방법으로 사각 회전인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결정된 요인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2차 조사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 이후에 다른 표본을 분석하여 최종모형을 확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적합도 판단에는 우수한 적합도 지수로 알려진 RMSEA, TLI, CFI를 통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χ^2 값은 유의확률의 기준을 따르고, RMSEA는 .06 이하이면 매우 우수, .06~.08 사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TLI와 CFI는 1부터 0의 값으로 나타나는 지수로, 그 값이 .9 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8 이상을 marginal fit으로 볼 수 있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모형의 수용은 다양한 적합도 지수의 충족 여부와 문항의 요인 적재치, 이론적인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개별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 이어 요인 구조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기능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지감수성은 성별에 따라 응답 방향이 다를 가능성이 높고, 남녀 모두에게서 같은 기능을 하는 문항으로만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소한 요인 구조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검증하는 단계로 검증되며, 각 단계는 전 단계가 충족되어야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Hong, Malik & Lee, 2003). 각 단계는 CFI가 .015 이상 하락하거나 RMSEA가 .01 이상 증가하는 경우, 카이제곱 검정 결과 자유도와 χ^2 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측정 동일성까지 충족된다면 두 집단 간의 요인 구조 자체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Little & Ledford, 2007). 만약 절편 동일성까지 충족된다면 두 집단의 규준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집단 간 요인의 기능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집단별로 규준 집단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요인들의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항목합산(Item Parceling)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Cattell(1956), Cattell & Burdsall(1975)의 연구에서 유래된 방법으로 교육학 및 심리학, 조직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활발히 활용되었다. 항목합산을 활용하는 경우 더욱 추정에 용이하고, 많은 항목으로 추정된 것보다 더 적합한 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Bandalos, 2002;

Marsh, Hau, Balla, & Grayson, 1998; Bagozzi & Heatherton, 1994). 일반적으로 잠재 변인 당 측정 변인의 수는 3~4개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Kishton & Widaman, 1994), 각 변수의 문항들을 합산하여 3개의 항목씩 합산하였다. 각 합산 항목은 요인 적재치가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들을 순서대로 매치시켜 합산한 값을 활용하였다.

또한, 검사 결과에 대한 보다 명료하고 유용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척도를 위계적 2요인 모형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사한 척도 간 상관계수를 비교하고, 예측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예측 문항에 대하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상관계수와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과 상관분석 등에는 SPSS 26.0을 사용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확인을 위하여 JASP 0.15를 사용하며,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문항 결정

1차 조사 대상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예비문항은 타당도 척도 개발용 방어적 반응 척도 18문항을 제외하면 161문항이었다. 모든 문항을 투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측도는 .846, Bartlett 검정 결과는 $\chi^2(12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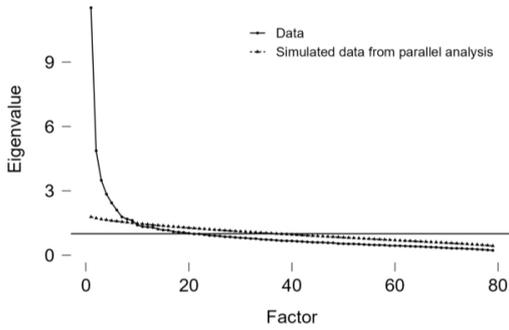


그림 1. 탐색적 요인분석의 스크리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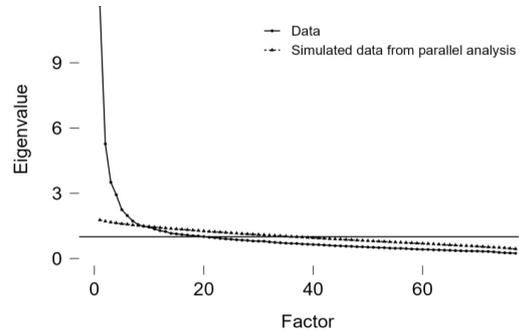


그림 2. 수정 모형의 스크리 도표

39593.779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아이겐 값 1 이상인 요인의 수는 47개로 나타났다. 스크리 도표를 확인했을 경우 도표가 평행이 되는 선과 교차하는 지점은 8개가 되는 지점이고, 거의 평행이 되는 지점은 16개가 되는 지점이었으므로 본 모형에서 적절한 요인 수는 8~16개로 추정할 수 있다(그림 1).

다음으로는 적합도지수와 요인구조를 통해 모형을 결정해야 하는데, 16요인의 경우 문항수가 1개인 요인이 발생하고, 15요인 모형의 경우에도 적합도 지수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chi^2(10570)=15024.472$, $p<.001$, TLI=.791, CFI=.833, RMSEA=.026, SRMR=.030). 이에 문항별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양호한 적합도 지수가 나올 때까지 문항을 삭제하여 총 161문항 중 84개의 문항이 탈

락하였다. 최종적으로 77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수에 따른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수정모형의 스크리 도표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스크리 도표의 결과와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12요인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하여 이 단계에서는 12요인을 최종모형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실시한 연구자들 간의 논의에서, 12번째 요인의 문항이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기에는 문항수가 적게 편성된 점을 확인하고, 내용상 적합한 다른 요인에 포함하도록 재배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2요인 문항들은 다른 요인으로 배치되고, 총 11요인 모형의 총 77개의 문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표 4. 수정모형의 요인 수에 따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χ^2	df	TLI	CFI	RMSEA	SRMR
8요인	3815.911***	2338	.852	.883	.032	.032
9요인	3565.334***	2269	.866	.898	.030	.030
10요인	3321.292***	2201	.881	.912	.029	.028
11요인	3090.398***	2134	.895	.925	.027	.027
12요인	2902.661***	2068	.905	.934	.025	.025
적합도 기준	$p<0.5$.8이상	.8이상	.10이하	.9이하

*** $p<.001$

확인적 요인분석

2차 조사 대상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11개 요인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각 요인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인명을 결정하였다. 각 요인은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성폭력 통념’, ‘성적 자극 추구’, ‘성적침해 둔감’, ‘성차별 인식 능력’, ‘고통공감 능력’, ‘자기통제 능력’, ‘조망수용 능력’, ‘성평등 지향’으로 명명되었다.

다음으로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라 요인구조가 같은지 확인하였고,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었으나 절편 동일성은 요인별로 충족되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 ‘조망수용 능력’과 ‘남성에

대한 편견 척도’는 절편 동일성까지 충족되었으나 나머지 척도는 그렇지 못하였다. 성인지감수성의 특성상 남녀가 같은 문항으로 검사했을 경우 절편이 동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별도의 규준집단으로 표준화 작업을 거쳤다.

이어서 전체 요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요인의 적합도는 항목합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마찬가지로 형태, 측정, 절편 동일성까지 검증하였는데, 전반적인 경향에 따라 절편 동일성은 확보되지 못하였고,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은 확보되었다.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이로써 성인지감수성 검사의 전체적인 틀이 확정되었다.

전체 문항들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5. 성인지감수성 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χ^2	df	IFI	TLI	CFI	RMSEA
요인1 : 성적 자극 추구	85.737 ^{***}	14	.972	.945	.972	.070
요인2 : 여성에 대한 편견	91.344 ^{***}	14	.962	.924	.962	.072
요인3 : 성평등 지향	86.173 ^{***}	14	.947	.893	.946	.070
요인4 : 성역할 고정관념	76.832 ^{***}	20	.968	.942	.968	.052
요인5 : 조망수용 능력	54.756 ^{***}	14	.950	.898	.949	.053
요인6 : 성적침해 둔감	48.310 ^{***}	14	.970	.939	.969	.048
요인7 : 자기통제 능력	43.220 ^{***}	14	.956	.910	.955	.044
요인8 : 남성에 대한 편견	45.040 ^{***}	14	.971	.941	.970	.046
요인9 : 성차별 인식 능력	11.291	9	.994	.986	.994	.016
요인10 : 고통공감 능력	40.044 ^{***}	14	.966	.930	.965	.042
요인11 : 성폭력 통념	48.981 ^{***}	14	.966	.931	.965	.049
적합도 기준	$p < 0.5$.8이상	.8이상	.10이하	.9이하

*** $p < .001$

표 6. 성인지각수성 요인별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동일성	χ^2	df	IFI	TLI	CFI	RMSEA
성적 자극 추구	형태	101.615 ^{***}	28	.967	.932	.966	.050
	측정	122.406 ^{***}	34	.960	.933	.959	.050
	절편	359.215 ^{***}	41	.855	.800	.854	.086
여성에 대한 편견	형태	123.989 ^{***}	28	.945	.888	.944	.057
	측정	136.240 ^{***}	34	.941	.902	.940	.053
	절편	336.567 ^{***}	41	.829	.765	.828	.083
성평등 지향	형태	96.388 ^{***}	28	.950	.897	.948	.048
	측정	112.902 ^{***}	34	.942	.902	.941	.047
	절편	214.205 ^{***}	41	.871	.822	.869	.063
성역할 고정관념	형태	114.402 ^{***}	40	.956	.919	.955	.042
	측정	129.270 ^{***}	47	.951	.924	.950	.041
	절편	228.286 ^{***}	55	.896	.863	.895	.055
조망 수용 능력	형태	57.831 ^{**}	28	.961	.919	.959	.032
	측정	67.590 ^{**}	34	.956	.925	.954	.031
	절편	102.213 ^{***}	41	.918	.886	.917	.038
성적 침해 둔감	형태	123.989 ^{***}	28	.945	.888	.944	.057
	측정	136.240 ^{***}	34	.941	.902	.940	.053
	절편	336.567 ^{***}	41	.829	.765	.828	.083
자기 통제 능력	형태	58.967 ^{**}	28	.951	.897	.949	.032
	측정	65.123 ^{**}	34	.950	.915	.948	.029
	절편	104.843 ^{***}	41	.897	.855	.894	.038
남성에 대한 편견	형태	61.758 ^{***}	28	.969	.937	.968	.034
	측정	68.779 ^{***}	34	.968	.946	.967	.031
	절편	121.425 ^{***}	41	.926	.897	.925	.043
성차별 인식 능력	형태	27.432	18	.976	.941	.975	.022
	측정	35.630 [*]	23	.968	.938	.966	.034
	절편	104.613 ^{***}	29	.804	.707	.797	.099
고통 공감 능력	형태	51.520 ^{**}	28	.967	.932	.966	.028
	측정	67.737 ^{**}	34	.953	.920	.951	.031
	절편	153.041 ^{***}	41	.842	.780	.839	.051
성폭력 통념	형태	62.141 ^{***}	28	.963	.924	.962	.034
	측정	65.001 ^{**}	34	.966	.943	.965	.029
	절편	183.281 ^{***}	41	.843	.782	.841	.057
적합도 기준		$p < 0.5$.8이상	.8이상	.8이상	.9이하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성인지각수성 전체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df	IFI	TLI	CFI	RMSEA
전체 집단	1504.608***	440	.916	.892	.916	.048
형태 동일성	2047.304***	880	.902	.873	.900	.035
측정 동일성	2084.454***	902	.901	.874	.899	.035
절편 동일성	2578.686***	935	.862	.832	.860	.041
적합도 기준	$p < 0.5$.8이상	.8이상	.8이상	.9이하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성인지각수성의 요인 및 문항과 요인 부하량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성역할 고정관념	남자는 책임감이 ...	0.677
	남자는 여자보다 ...	0.671
	서비스업 관련 ...	0.603
	여자는 남자보다 ...	0.596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	0.561
	여자들은 소심한 ...	0.534
	여자들은 자기를 ...	0.478
	힘이 센 ...	0.439
남성에 대한 편견	남자들은 일을 ...	0.627
	남자들이 힘이 ...	0.615
	가족 안에서의 ...	0.575
	남자가 여들과 ...	0.501
	남자들이 권리를 ...	0.493
	여자들은 힘이 ...	0.429
	성차별은 남자에게도 ...	0.395
여성에 대한 편견	여자들의 권리주장이 ...	0.692
	여자들은 늘 ...	0.644
	여자들은 잘못해도 ...	0.615
	여자들은 약한 ...	0.607
	여성범죄 기사에서는 ...	0.604
	요즘은 남자가 ...	0.554
	요즘은 너무 ...	0.530

표 8. 성인지각수성의 요인 및 문항과 요인 부하량 (계속 1)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성폭력 통념	평소 야하게 ...	0.632
	성범죄 피해자가 ...	0.597
	성폭력을 당한 ...	0.595
	만질 때는 ...	0.555
	성을 사고팔지 ...	0.413
	온라인에 떠도는 ...	0.393
	성범죄 피해자가 ...	0.383
성적 자극 추구	온라인 채팅방에 ...	0.769
	성인용 영상물을 ...	0.766
	야한 사진이나 ...	0.719
	평소 성인용 ...	0.695
	성인용 영상물을 ...	0.609
	친구와 친해지고 ...	0.590
	친구들끼리 다른 ...	0.540
성적침해 둔감	친구의 민감한 ...	0.657
	친구의 몸을 ...	0.595
	온라인에서는 친구들끼리 ...	0.564
	야한 동영상은 ...	0.517
	나를 좋아해 ...	0.492
	친구가 동의해서 ...	0.450
	나에게 잘해주는 ...	0.449

표 8. 성인지각수성의 요인 및 문항과 요인 부하량 (계속 2)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성차별 인식 능력	내가 남자 ...	0.497
	내가 흑시라도 ...	0.483
	나는 교과서나 ...	0.466
	나는 남자 ...	0.450
	남학생이 반 ...	0.351
	성 고정관념이 ...	0.325
고통공감 능력	괴롭힘당하는 친구가 ...	0.598
	성차별 받는 ...	0.563
	누군가가 안 ...	0.554
	다른 사람이 ...	0.460
	친구가 우는 ... *	0.398
	인터넷에서 성범죄 ...	0.389
	온라인 성범죄는 ... *	0.302
자기통제 능력	친구의 기분이 ...	0.617
	다른 사람이 ...	0.600
	따돌림 당할까봐 ...	0.433
	친구가 의기소침해 ...	0.395
	나의 말이 ...	0.379
	성에 대한 ...	0.367
	나는 내 ...	0.311
조망수용 능력	내 의견에 반대하는 ...	0.670
	내 행동이 ...	0.510
	내가 싫어하는 ...	0.496
	친구가 나와 ...	0.440
	나와 다른 ... *	0.423
	친구를 욕하기 ...	0.400
	친구가 내 ...	0.395

표 8. 성인지각수성의 요인 및 문항과 요인 부하량 (계속 3)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성평등 지향	성차별을 줄이려면 ...	0.718
	성차별을 줄이기 ...	0.656
	성평등 한 ...	0.643
	우리 사회의 ...	0.470
	성차별을 줄이기 ...	0.469
	학교에서는 남녀평등에 ...	0.466
	남녀가 서로를 ...	0.401

* 역문항

위계 2요인 모형

척도의 간명성과 해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계 2요인 모형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자들의 논의에 따라 1요인은 ‘성인지와 성에 대한 태도’, 2요인은 ‘감수성과 성평등 지향’으로 구분하였다. ‘성인지와 성에 대한 태도’에는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성폭력 통념’, ‘성적 자극 추구’, ‘성적침해 둔감’이, ‘감수성과 성평등 지향’에는 ‘성차별 인식 능력’, ‘고통공감 능력’, ‘자기통제 능력’, ‘조망수용 능력’, ‘성평등 지향’이 배치되었다. 2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IFI, TLI, CFI가 .8 이상으로 다소 낮으나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인지적 측면과 감수성 측면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러한 2요인 구조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모형의 구조와 요인분석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9. 성인지각수성 척도의 구성

요인		문항수
성인지와 성에 대한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	8
	남성에 대한 편견	7
	여성성에 대한 편견	7
	성폭력 통념	7
	성적 자극 추구	7
	성적침해 둔감	7
	성차별 인식 능력	6
	고통공감 능력	7
	자기통제 능력	7
	조망수용 능력	7
성평등 지향	7	
성평등 지향	7	

타당도 척도 개발

본 척도 외 타당도 척도를 ‘방어적 반응 척도’, ‘일관성 척도’, ‘비전형적 반응 척도’로 구성하고 본 척도와 동일하게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척도의 구성은 표 11과 같고, 요인분석

표 11. 타당도 척도의 구성

요인		문항수
타당도	비일관적 반응	14 (본 척도 중복문항 2개 포함)
	비전형적 반응	7
	방어적 반응	9

표 10. 위계 2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χ^2	df	IFI	TLI	CFI	RMSEA
값	1210.138***	197	.882	.847	.881	.070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타당도 요인별 및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모형	χ^2	df	IFI	TLI	CFI	RMSEA
방어적 반응	최초	464.076***	90	.765	.681	.761	.063
	수정	87.013***	27	.946	.909	.945	.046
	형태	90.999***	40	.947	.901	.945	.035
	측정	99.668***	47	.945	.913	.943	.033
	절편	110.832***	55	.941	.921	.940	.031
비전형적 반응	최초	258.368***	65	.877	.825	.875	.053
	수정	37.333**	14	.971	.940	.970	.040
	형태	48.904**	28	.971	.939	.969	.027
	측정	55.291*	34	.970	.949	.969	.024
	절편	179.555***	41	.801	.722	.797	.057
적합도 기준	$p < 0.5$.8이상	.8이상	.8이상	.9이하

* $p < .05$, ** $p < .01$, *** $p < .001$

결과는 표 12, 문항별 요인 부하량은 표 13에 정리하였다.

먼저 방어적 반응 척도는 예비문항 18개를 모두 투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문항을 삭제하면서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최적의 적합도를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9개가 선정되었다. 방어적 반응 척도는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이 모두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비일관적 반응 척도는 동일한 속성을 질문하는 7개의 쌍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쌍은 .469과 .718사이의 상관계수를 갖는 높은 상관을 지닌 문항들로 만약 일관된 반응을 하지 않고 무작위로 반응하거나 검사에 집중하지 않아 비일관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점수가 상승하는 형태이다. 이는 예비문항에 포함되었다가 탈락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고, 성차별 인식 능력에 해당하는 문항인 ‘나는 교과서나 학습지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을 잘 찾는 편이다’와 성평등 지향에 해당하는 문항인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더 필요한 것 같다’의 2개의 문항을 문항 쌍의 일부로 포함하였다. 한 쌍을 이루는 두 문항의 차이 값을 모두 절대값으로 환산한 뒤 이 값을 모두 더한 값이 원점수가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일관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비일관적 반응 척도의 경우 각 문항 쌍 간 상관이 높고, 비일관성 자체만을 측정하는 지표로 표준화 점수만 산출하는 형태이므로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비전형적 반응 척도는 본 척도의 예비문항 중 난도가 매우 높거나 낮아 대상자의 대부분이 치우친 방향으로 반응하는 문항으로 추출하였다. 4점 척도 중

표 13. 타당도의 요인 및 문항과 요인 부하량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나는 학습 ...	쌍1-1	
		나는 교과서나 ...	쌍1-2	
		성차별을 없애기 ...	쌍2-1	
		성차별을 줄이기 ...	쌍2-2	
		더 많은 ...	쌍3-1	
		성평등 교육을 ...	쌍3-2	
	비일관적 반응		나는 누군가를 ...	쌍4-1
			나는 성차별적인 ...	쌍4-2
			성인용 영상물 ...	쌍5-1
			야한 영상은 ...	쌍5-2
		남자를 따라 ...	쌍6-1	
비전형적 반응		여자처럼 여성스러운 ...	쌍6-2	
		왜 동성애를 ...	쌍7-1	
		동성끼리 결혼하지 ...	쌍7-2	
		성추행한 학생에게 ...	0.591	
		남자나 여자를 ...	0.567	
		피해자가 누구인지 ...	0.498	
		사귀는 사이여도 ... *	0.455	
		화장실에 불법 ...	0.445	
		같은 성별 ...	0.425	
		남자들은 적극적인 ...	0.377	
방어적 반응		나는 다른 ...	0.614	
		지나고 보면 ...	0.561	
		나는 누군가가 ...	0.496	
		내 생각과 ...	0.467	
		나는 힘들어도 ...	0.441	
		나는 항상 ...	0.421	
		나는 위협에 ...	0.414	
		나는 남에게 ...	0.409	
	누군가를 도와주기 ... *	0.371		

90% 이상의 대상자들이 1점이나 2점에 반응이 몰리거나, 3점이나 4점에 반응이 몰리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최초 예비문항에서 1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고, 모형수정을 통해 최종 7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1개의 역채점 문항을 포함하며 높을수록 비전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전형적 반응 척도의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었고, 절편 동일성은 충족되지 않았다. 절편 동일성이 충족되지 않은 것은 활용된 문항이 성인지각수성의 측정 문항이 성별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것으로 성인지각수성 척도는 11개 요인과 타당도 척도 3개를 포함하여 총 14개의 척도로 구성된 105개의 문항으로 완성되었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마지막으로 결정된 최종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수 및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였으며, 예측타당도와 공인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지문과 유사 척도들을 활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하위 요인 척도 간 상관관계수 및 내적 합치도 확인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상관관계수는 표 14, 검사의 Cronbach's α 값은 표 15에 각각 제시하였다. 상관관계수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나 .7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척도는 없었다.

‘성차별 인식 능력’과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편견’, ‘성폭력 통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조망수용 능력’

표 14. 요인별 상관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비일관적 반응(1)	1													
비전형적 반응(2)	-.126**	1												
방어적 반응(3)	.113**	-.326**	1											
성역할 고정관념(4)	-.027	.516**	-.182**	1										
남성에 대한 편견(5)	-.151**	.535**	-.243**	.531**	1									
여성에 대한 편견(6)	.076*	.325**	-.141**	.434**	.109**	1								
성폭력 통념(7)	-.018	.530**	-.223**	.557**	.459**	.503**	1							
성적 자극 추구(8)	-.033	.484**	-.309**	.461**	.304**	.423**	.496**	1						
성적침해 둔감(9)	-.027	.583**	-.315**	.532**	.434**	.395**	.573**	.695**	1					
성차별 인식 능력(10)	-.097**	.089**	-.032	.026	.182**	.059	.029	.142**	.071*	1				
고통공감 능력(11)	.109**	-.446**	.437**	-.258**	-.326**	-.248**	-.382**	-.292**	-.342**	.103**	1			
자기통제 능력(12)	.049	-.307**	.250**	-.159**	-.237**	-.028	-.158**	-.116**	-.176**	.211**	.455**	1		
조망수용 능력(13)	.037	-.326**	.599**	-.230**	-.286**	-.183**	-.333**	-.295**	-.300**	.008	.421**	.275**	1	
성평등 지향(14)	.067*	-.372**	.274**	-.230**	-.232**	-.124**	-.287**	-.202**	-.292**	.248**	.403**	.358**	.238**	1

* $p < .05$, ** $p < .01$

표 15. 요인별 내적 합치도

요인	a	요인	a
비전형적 반응	.671	성적침해 둔감	.731
방어적 반응	.707	성차별 인식 능력	.571
성역할 고정관념	.791	고통공감 능력	.652
남성에 대한 편견	.723	자기통제 능력	.633
여성에 대한 편견	.822	조망수용 능력	.660
성폭력 통념	.711	성평등 지향	.741
성적 자극 추구	.849		

과 ‘여성에 대한 편견’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성차별 인식 능력’은 외부 환경은 물론 자기 생각과 행동이 성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능력으로, 성차별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있지 않다면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며, 성차별적 사고와 행동과는 별개의 요인이기 때문이므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적 합치도의 경우 모든 척도에서 .5 이상의 수치를 보여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어서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표본 조사 시 본 검사와 유사개념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성평등의식은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하정, 홍세희, 유성경, 2005)를 활용하였으며, 공감 능력은 청소년 공감 척도(홍혜영, 김유숙, 2015)로 조사하였다. 상관계수는 표 16과 같다. 하위 척도들과 유사 척도 간의 상관을 살펴

표 16. 공인타당도 척도와의 상관계수

요인	성평등의식	공감능력
성인지와 성에 대한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	.613**
	남성에 대한 편견	.568**
	여성에 대한 편견	.337**
	성폭력 통념	.571**
	성적 자극 추구	.400**
	성적침해 둔감	.514**
감수성과 성평등 지향	성차별 인식 능력	-.043
	고통공감 능력	-.442**
	자기통제 능력	-.356**
	조망수용 능력	-.306**
	성평등 지향	-.469**

* $p < .05$, ** $p < .01$

보면, ‘성인지와 성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들은 성평등의식 척도와 .400~.613의 범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나 적정 수준이었다. 한편, ‘감수성과 성평등 지향’의 하위 요인들은 ‘공감 척도’와 모두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성차별 인식 능력’은 .103의 비교적 낮은 상관이 나타났으나, 이는 성차별 인식 능력이 인식 여부에 대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감정적 동요나 공감 또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척도들과 함께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 척도들은 .308~.640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어 적정 수준이었다. 상관계수가 보여주듯 ‘성인지와 성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측면인 성평등의식과 가까우며, ‘감수성과 성평등 지향’은 감정적 측면인 공감 능력과 가깝다. 양 척도 간의 상관을 통하여 본 검사의 공인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예측타당도의 경우 2차 표본 조사 당시 2가

지 상황에 대한 지문을 제시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지문1은 성차별에 대한 이슈, 지문2는 성폭력에 대한 이슈로 구성되었고, 각 지문을 읽고 등장인물이 얼마나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단, 본 지시문은 문항에 대한 응답에 이어서 응답하는 식이며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보다 다양한 지문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여 예측타당도를 완전히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을 미리 밝혀둔다. 각 지문에 대한 상관계수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성차별을 측정하는 지문1의 경우 ‘남성에 대한 편견’과 ‘고통공감 능력’, ‘조망수용 능력’, ‘성평등 지향’이 유의미한 정상관을 나타내었다. 성폭력에 대한 지문2의 경우에는 ‘성차별 인식 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성인지와 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6개 요인은 모두 역상관이, ‘감수성과 성평등 지향’에 대한 4개의 요인은

표 17. 예측타당도 문항과의 상관계수

요인		성차별	성폭력	합산
성인지와 성에 대한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	-.061*	-.201**	-.169**
	남성에 대한 편견	.145**	-.226**	-.243**
	여성에 대한 편견	.011	-.161**	-.099**
	성폭력 통념	-.105**	-.228**	-.214**
	성적 자극 추구	-.042	-.252**	-.191**
	성적침해 둔감	-.120	-.355**	-.306**
감수성과 성평등 지향	성차별 인식 능력	-.008	-.022	-.019
	고통공감 능력	.098**	.249**	.223**
	자기통제 능력	.047	.197**	.158**
	조망수용 능력	.069*	.154**	.142**
	성평등 지향	.145**	.230**	.239**

* $p < .05$, ** $p < .01$

모두 정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상관계수로 볼 수 있다. 두 지문을 합산한 값에 대한 상관은 마찬가지로 ‘성차별 인식 능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계수는 .099 에서 .306 정도로 보통 수준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각 지문의 응답 값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차별 지문은 $F(2, 982)=19.577, p<.001$ 로 유의미하였고, 3.8%의 설명력을, 성폭력 지문은 $F(2, 982)=7.099, p<.01$ 으로 유의미하였으며 1.4%의 설명력을 보였다. 두 지문의 값을 합산한 경우에도 유의미하였고($F(2, 980)=39.198, p<.001$), 13.8%의 보통 수준의 설명력을 보였다. 성차별 지문에서는 ‘남성에 대한 편견’($B=-.056, t=-3.939, p<.001$)과 ‘성평등 지향’ 척도($B=.050, t=3.816, p<.001$)가 유의미하였고, 성폭력 지문의 경우 ‘고통공감 능력’($B=-.0425, t=-3.268,$

표 18. 성인지각수성 척도의 측정 내용

요인	측정 내용	
성인지와 성에 대한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	전형적인 남성상 및 여성상,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함께 성별의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차별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지를 측정
	남성에 대한 편견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이에 반하는 행동을 비하하거나, 혹은 남성이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공격으로 남성을 평가절하하려는 태도를 측정
	여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을 받는 구조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되려 여성의 권리주장이 남성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관점을 가졌는지를 측정
	성폭력 통념	성과 관련된 다양한 폭력의 발생 원인과 피해자와 가해자 및 사건 자체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나 태도를 측정
감수성과 성평등 지향	성적 자극 추구	청소년기에 흔히 노출될 수 있는 음란물을 비롯한 다양한 성적 자극에 대한 태도를 측정
	성적침해 둔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적침해 행동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부하는 지를 측정
	성차별 인식 능력	외부 환경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성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능력을 측정
	고통공감 능력	힘든 상황에 부딪친 타인을 보고 인지적, 정서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
	자기통제 능력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조망수용 능력	타인의 옳은 의견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행동에 반영하려는 태도를 측정
	성평등 지향	성평등 실천을 위한 여러 법과 제도, 사회운동에 대한 지지 정도와 실천 의지를 측정

$p < .01$), ‘성차별 인식 능력’($B = .030$, $t = 2.189$, $p < .05$)이 유의미하였다. 합산한 경우에는 ‘성적침해 둔감’($B = -.124$, $t = -5.881$, $p < .001$), ‘성평등 지향’($B = .082$, $t = 3.819$, $p < .001$), ‘남성에 대한 편견’($B = -.067$, $t = -2.818$, $p < .01$), ‘고통공감 능력’($B = .059$, $t = 2.531$, $p < .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최적의 간명한 모델을 수용하므로 상관계수 및 몇몇 요인들이 의미 있는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설명력을 보여 예측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성인지감수성 척도의 측정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준화 작업

성별 집단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연령별, 성별 집단을 구분하여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규준집단은 우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며, 다시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누었다. 즉 중학생 남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여자로 구분된다. 표준화는 50점이 평균이고 10점의 표준편차를 갖는 T점수로 표준화하였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성별에 따른 다양한 입장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성별로 인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현상에 대해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다양한 차원과 맥락에 확대 적용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변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성인지감수성의 구성요인을 확인하는 한편, 표준화된 청소년용 성인지

감수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성인지감수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성인지감수성의 일부, 혹은 연구자의 의도를 반영한 특정 부분을 주로 측정하고 있는 점, 연구 대상의 표집 집단이 적고 표준화가 미흡하다는 점, 성차별로 인한 차별과 폭력 경험을 여성에 한정하여 남성의 경험을 담기 어려운 한계에서부터 출발했으며 연구의 결과로써 개발된 청소년용 성인지감수성 척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성인지감수성의 포괄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요인들을 구성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에 대한 편견, 성폭력 통념뿐 아니라 청소년기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한 성이슈인 성적 자극과 침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지적 측면을 비롯하여 성차별과 성적침해 이슈에 대한 공감, 나와 다른 입장에 대한 배려와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성평등 실천을 위한 변화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 있어 폭넓은 성인지감수성 개념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척도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에 대한 적대감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스러움을 보이는 것에 대한 혐오적 태도, 남성이 특권을 누린다고 여기며 본래의 모습을 평가절하하고 적대하는 태도, 남성의 육체는 강하므로 침범해도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태도, 성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일 것으로 추정하는 태도 등이다. 성인지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모든 성별에 대한 개별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남성 또한 언제든지 성차별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부당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문항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셋째, 문항을 개발할 때 인지적인 부분만을 측정하기보다는 유발되는 감정의 종류와 정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를테면 ‘성적침해 둔감’ 척도에서 ‘친구의 몸을 만지는 장난을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문항은 ‘친구의 몸을 만지는 장난은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보다 피검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태도가 외현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다 잘 예측하게 한다.

넷째, 청소년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청소년기가 이차성징이 나타나고 성적 호기심이 활발해지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성과 관련된 정보를 취하는 방식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이 밖에도 또래 문화에 따르려는 경향과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온라인 성범죄, 성적 장난이나 괴롭힘, 그루밍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같은 문항에서 성인의 성인지각수성 측정과는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기존에 행해진 국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들이 연구 대상자인 청소년 표집 확보의 한계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극복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보하고, 이어 공인타당도와 예측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를 측정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지금까지 타당도와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보된 성인지각수성 척도가 거의 없

었다는 점에서 이는 본 척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예측타당도는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지문이 성차별과 성폭력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된 문항 수도 적어 성인지각수성의 구성요인을 모두 측정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된 구성요인을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지문이 구성되고 문항 수도 풍부하게 제시된다면 보다 면밀한 예측타당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본 척도는 총 10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검사로 검사 시간은 약 40분 내외이며, 집단검사로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검사자라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지침서를 제공한다. 척도는 위계적 2요인 모형으로 구성되었으며 타당도 척도를 포함하고 있어 검사해석도 용이하다. 검사의 수행과 해석을 비교적 수월하도록 개발한 까닭은 본 척도가 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나 학부모가 청소년의 지도 방향을 숙고하는데 참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성인지각수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답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논란이 되어 청소년들의 성인지각수성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인지각수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체계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만의 고유한 특성을 확인하고,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증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는 모든 부분에서 성장을 하지만 특히 이차성징이라는 신체적 변화가 두드러지고 성적 행동에 대한 관

심도 증폭되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은 유아·아동기와 성인·노년기와는 구별되는 과업을 수행하며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면서 그에 따른 성인지적 관점을 구축해 나간다. 그리고 청소년은 미디어나 인터넷, SNS 등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흡수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청소년의 성 이슈에는 항상 새로운 장면들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어떠한 젠더갈등에 놓여있는지, 어떤 부분을 고민하며 어떤 개입을 원하는지가 충분히 연구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국가의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양성평등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인권교육 등 여러 갈래로 각기 실행되는 교육을 통합·연계하여 구성한다면 효율적인 교육 기능과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성인지감수성 척도’는 포괄적인 성인지감수성 개념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써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서 기준 척도로 활용될 수 있겠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성인지감수성 발달의 정도를 파악하고 교육·지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좋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청소년 성인지감수성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기초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성인지감수성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나아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청소년용 성인지감수성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것도 연구의 큰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진 의의와 개발된 척도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와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이 연구의 대상은 설문 조사에 동의한 서울·부산·대구·경기도·충청

도·전라도 소재의 학교 학생들로 선정되었다. 또한 학년과 성별이 일부에 편중된 양상도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예비 문항 개발을 위해 7인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1차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반응 및 진행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2차 설문 문항을 조정하였으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성인지감수성의 구성개념 및 예비문항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별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연구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태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본 척도에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사를 위해 배포된 설문지에는 이와 관련한 다수의 예비문항을 포함하였으나 요인분석 과정에서 관련 개념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문항 꾸러미가 생성되지 않았고,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유추해 보자면, 먼저 청소년기는 성적 성숙에 따른 적응과 성생활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시기로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청소년기는 이차성장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적 기능을 경험하게 되며, 다른 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성행동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하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내적인 성 정체감과 성적 지향성이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하는 성역할과 일치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Sullivan은 청소년기를 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로 보고 전기와 후기를 분류하였는데, 전기는 성적 접촉 욕구와 이성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 등 다양한 성적 욕구들이 융합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시기이며, 후기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며 각 욕구

간 평형이 이루어지고, 성인 사회로의 통합을 이루려는 욕구가 발생하는 시기로 보았다 (Jacobson, 1955). 따라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의 확립과 이해도는 개별 청소년 간 발달 수준에 따라 큰 격차가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에 비릇된 영향을 상쇄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의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 내용, 받아들이는 청소년의 태도 등 청소년 내·외부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측정 문항을 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편, 본 척도의 기준집단이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성소수자 집단이 가진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연구 윤리에 따라 조사가 학교에서 집단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염두하고 대상자들의 연구 참여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으로 개별 청소년의 성정체성을 확인하는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같은 배경으로 청소년의 성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공은선, 최나연, 2022; 강병철, 김지혜, 2006; 오근숙, 2005). 국내의 청소년 성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인 동성애자들의 회고적 경험을 통해 주로 시행되었다(강병철, 하경희, 2012). 본 척도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라는 개념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 개발 과정에서 예측타당도의 정밀한 측정이 다소 부족했으므로 향후 본 척도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예측타당도의 확보와 함께 다양한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선미 (2005). 양성평등 감수성 훈련 매뉴얼. 서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강은영, 강민영, 박지선 (2020).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인지각수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52.
- 강병철, 김지혜 (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59.
- 강병철, 하경희 (2012).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99-128.
- 공은선, 최나연 (2022). 청소년 지도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경험. 한국청소년연구, 33(4), 115-139.
- 교육부 (2015).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표준안. 서울: 교육부.
- 김경령, 서은희 (2020). 젠더감수성 측정을 위한 구인 탐색 및 척도 개발. 교육연구논총, 41(4), 63-90.
- 김경숙, 김한결, 선우현 (2022). 청소년의 성별·학년에 따른 성인지각수성 연구. 인문사회21, 13(2), 705-719.
- 김양희, 정경아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희 (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개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7, 153-182.
- 김인숙, 이은영, 하지선 (2010).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62(1), 55-81.
- 안상수, 김이선, 박근석, 이상화, 김정인 (2009). 성인지력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서울: 한국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안상수, 김인순, 김금미 (2016).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검사 타당화 기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8).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오근숙 (2005). [특별기고] 보이지 않는 아이들-성소수자 청소년들. *중등우리교육*, 76-81.
- 이병숙, 김명애, 고효정 (2002).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2(3), 373-383.
- 이진영 (2011).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 (2007). 한·중·일 청소년의 성 지식, 성태도, 성행동 및 성교육비교분석.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경혜 (2018). 청소년의 부모·또래 요인, 인터넷음란물 접촉, 성인지각수성 간의 관계 및 성교육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정, 홍세희, 유성경 (2005).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C)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2), 105-127.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혜영, 김유숙 (2015). 청소년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59-183.
- Bagozzi, R. P., & Heatherton, T. F. (1994). A general approach to representing multifaceted personality constructs: Application to state self-este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 35-67.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eere, C. A., King, D. W., Beere, D. B., & King, L. A. (1984). The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A measure of attitudes toward equality between the sexes, *Sex Roles*, 10, 563-576.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Cattell, R. B. (1956). Valid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he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 205-214.
- Cattell, R. B., & Burdsall, C. A. (1975). The radial parcel double factor design: A solution to the item-versus-parcel controversy.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0, 165-179.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ruber, E., & Grube, J. W. (2000). Adolescent sexuality and the media: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and implications. *West Journal of Medicine*. 172. 210-214.
- Hong, S., Malik, M. L., & Lee, M. K.(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63(4), 636-654.
-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acobson, E. (1955). Sullivan's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1), 149-156.
- Kishton, J. M., & Widama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757-765.
- Leal Filho, W. (2021). Encyclopedia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LeMare, L. J., & Rubin, K. H. (1987). Perspective taking and peer interaction: Structural and development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306-315.
- Little, T. D., Card, N. A., Slegers, D. W., & Ledford, E. C. (2007). Representing contextual effects in multiple-group MACS models. *Modeling contextual effects in longitudinal studies*, 121.
- Marsh, H. W., Hau, K. T., Balla, J. R., & Grayson, D. (1998). Is more ever too much? The number of indicators per fact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3, 181-220.
- McMahon, S., & Farmer, G. L. (2011). An updated measure for assessing subtle rape myths. *Social Work Research*, 35(2), 71-81.
- Obiunu, J. J. (2013). The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on discrimination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Emerging Trends in Educational Research and Policy Studies*, 4(6), 888-894.
- Spence, J. T., Helmreich, R., & Stapp, J. (1973). A short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W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4), 219-220.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Vafaei, A., Alvarado, B., Tomás C., Muro, C., Martínez, B., & Zunzunegui, M, V. (2014). The validity of the 12-item Bem Sex Role Inventory in older Spanish population: An examination of the androgyny model.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9(2), 257-263.

1차원고접수 : 2024. 11. 04.

심사통과접수 : 2024. 12. 23.

최종원고접수 : 2024. 12. 30.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a Gender Sensitivity Inventory for Adolescence Scale

Ji Hye Lee Woo Hyun Park So Young Jun Soo Jung Lee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finding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adolescence gender sensitivity and developing a standardized adolescence gender sensitivity measurement scale. To conduct the study, questionnaires containing preliminary questions were distributed to six middle schools(n=979) and five high schools(n=1,864) nationwide. After eliminating phony responses, 1,656 returned responses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Gender Sensitivity Inventory for Adolescence Scale', and the hierarchical two-factor model was verified to determine the final model of the scale. Standardization of the final scale was completed, along with the verification of the analysis target's construct validity, public validity, reliability. As a result of the study, 'gender perception and sexual attitudes' included 'gender role stereotypes', 'myths about sexual violence', 'prejudice against men', 'prejudice against women', 'pursuit of sexual stimulation', and 'sensitivity to sexual infringement' as components of adult cognitive sensitivity in adolescents, and 'sensitivity and gender equality orientation' included 'ability to recognize gender discrimination', 'ability to empathize with pain', 'ability to self-control', 'ability to accept perspective', and 'orientation towards gender equality'. 105 questions in all were chosen to be the final questions as a consequence. The interpretation direction for this scale was supplied at the study's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since it created a standardized scale and determined the components of teenage adult cognitive sensitivity. This scale can be a helpful tool for developing programs and assessing their efficacy, as well as for deciding the direction of youth guidance in the educational area.

Key words : adolescence, gender sensitivity, gender inequality, sexual violence, hatred, empathy